

제대 남성의 성장 혹은 퇴화, 한국적 남성성의 ‘형성기’

— 최상규 『형성기』론

이 경 인*

요약

본고는 최상규의 『형성기』를 통해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징병제 정착 시기의 청년 남성의 내면을 살피고, 이로써 한국적 남성성의 근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시기의 징병제가 학적보유병에 대해서만 복무 기간 단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남성들의 차별 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형성기』의 주인공인 ‘한지수’는 학적보유병으로 입대할 수 있었으나 행정상의 오류로 일반병이 되었고, 이로 인한 박탈감이 그의 군대 체험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의식이 된다. 한편, 지수는 본인의 군대 체험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한다. 일시적으로 질병 신세를 졌던 과거의 경험과 그 당시의 무력감을 벗어나지 못한 제대 이후의 일상은 지수가 충분히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이어진다. 경제 활동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과 여성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이 지수의 남성성을 약화시키고, 이로써 지수는 이미 성인 남성의 세계에 뛰어들지 못하고 불확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형성기』는 돌연 ‘지한녀’라는 여성을 ‘서동환’으로부터 구출하는 이야기로 변모한다. 이때부터 소설은 서동환, 삼촌 등의 남성 인물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지수의 남성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동력으로 삼아 진행된다. 다만, 그들로부터 승리하고 한녀를 구출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지수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그 과정에서 지수의 남성성을 약화시키는 애초의 문제였던 군사주의적 남성성과의 동기화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폐된다. 이 지점에서 『형성기』는 갈구해 온 남성성을 마침내 획득했다고 착각하는 주인공을 보여주며 막을 내리는 실패한 서사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적 남성성을 설명할 때의 가장 흔한 전제인 ‘남성 연대’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인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형성기』를 한국 남성의 서사를 다각화하는 특유한 사례로 지목할 가능성이 열린다.

주제어: 징병제, 학적보유병, 제대 남성, 군사주의적 남성성, 한국적 남성성, 최상규, 『형성기』

목차

1. 들어가며
2. 전쟁 이후 군대의 재편과 당대의 청년 남성
3.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패하는 제대 남성
4. 남성성의 형성기, 또는 남성성 신화의 붕괴
5. 나가며: 승리를 유예하는 악몽

1. 들어가며

본고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특유한 남성성의 근원을 짚어내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남성성의 헤게모니¹⁾인 ‘징병제’에 얽힌 문제를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

1) 이는 R.W.코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주한 표현이다. 코넬은 “남성성을 구성하는 관계가 변증법적”이라고 보며, “남성성들은 젠더 관계로 구조화된 실천의 배치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 관점 아래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 지칭되는 남성성의 ‘헤게모니’ 또한 언제든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코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성들 내부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관점은 “다양한 남성성들 사이의 관계, 곧 남성성들이 동맹을 맺고 지배하고 종속되는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누군가를 위협하고 착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포함과 배제의 실천”으로 구성되며, 그 실천의 주체가 곧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다. 본고는 대한민국의 성립 이후 오늘날에도 여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남성성의 헤게모니가 ‘징병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그 헤게모니가 온전히 갖춰지기 이전의 혼란상을 살피고자 한다.

로 확립되기 직전의 혼란상을 살핌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지목해야 하는 시기는 학적보유병²⁾의 군 복무 기간을 일반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짧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표된 1957년이다. 당시의 징병제는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라면 당연하게 완수해야 할 의무로서보다는 비가시적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신분상의 격차를 확인토록 하는 불평등한 제도로 인식됐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국시에 따라 징병제가 자연스럽게 정착했다는 명제는 거짓이 된다.

징병제의 정착이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면, 그로써 형성됐다고 평가되는 한국적 남성성,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완성됐다고 논의되는 초남성성의 문제³⁾ 또한 본질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테다. 50년대 중반에서

R.W.코벌,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66-79면.

- 2) 1957년 8월 15일 자료 개정·시행된 「병역법」에는 대학생 신분 입대 자원의 복무 기간 단축 특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7조 1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6조에서 육군의 복무연한을 2년, 해군과 공군의 복무연한을 3년으로 한 것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이다. 「병역법시행령」(1959.2.18.)의 제1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 학년별 정원내의 자를 말한다.”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는 자격의 명시와 관련해 당시 대학생 신분의 군인을 학적보유병이라 칭했다.

「병역법」(1957.8.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f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병역법시행령」(1959.2.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49&ancYd=19590218&ancNo=01452&efYd=19590218&nwjf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3) 초남성성이란 박정희가 체제 안정을 위해 서구 제국주의의 남성성을 변형해 한국 사회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남성성을 확보한 사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박정희의 애초 의도보다도 더 빠르게 초남성성의 확보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이 요구하는 남성성이 제국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와 손쉽게 결합했기 때문이다. 박정희에 의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초남성성의 기획은 ‘남성적 서구’와 ‘여성적 아시아’의 이분 구도가 허구적인 설정에 가깝다는 사실 또한 폭로한다. Jongwo Han · L.M.H.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청년 남성들에게 요구된 ‘군인-시민’으로서의 남성성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기제라기보다는 국가적 폭력이 강제한 기형적인 결과에 가깝다. 한편, 바람직한 시민의 자격 또는 군인 정신을 갖춘 진정한 남성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징병제의 논리는 일종의 통과 의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로부터 군인이었던 남성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있다. 당대 학적보유명 특혜 논란이 시사하는바 또한 이와 관련되는데, 당시 문교부가 군 복무 기간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보여주듯 군 복무 기간은 성장의 기간이라기보다는 퇴보의 기간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크다. 상이군인의 처우 관련 문제나 제대 이후 생활고를 겪는 청년 남성의 구제 방안 관련 논의가 당대의 주요한 현안이었다는 사실도 징병제에 얽힌 퇴보의 서사를 가시화한다.

징병제의 정착 과정에서 당대 한국 남성들의 심리가 어떠한가의 문제에 대한 사회학·인류학·역사학·법학 등 여러 학계의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됐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는 강인화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강인화는 1950년대, 특히 1957년의 병역법 개정 결과를 문제시하고 병역의 무가 학력 또는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전후처리’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평가했다.⁴⁾⁵⁾ 1950년대 병역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병역 형평성에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윤시원의 논고 또한 주요한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a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v.42 no.1., 1998, pp. 64-74.

4) 강인화,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처리’: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법과사회』 6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5) 강인화의 박사학위논문은 일제 강점기 말기의 징병제부터 1999년 시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성립 전후의 시기와 이후 현대사 전반에서의 ‘징병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편적인 ‘병역의무’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핀다. 애초 병역의무가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과 관련해, 징병제의 보편적 적용이 시민의 요구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목하고, 징병제의 운용에 있어 개개인의 정동적 차원이 작동했음을 밝힌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1960-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점을 제공한다.⁶⁾ 법안 개정을 둘러싼 당시 국회의원들의 논쟁과 문교부-국방부 병무국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는 등 195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세밀하게 살필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과 병역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생겨나면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⁷⁾한다는 점이나 “한국 지배 엘리트 계급이 징병제에 대해 보인 모순적인 태도는 지속적으로 한국 징병제에 영향을 끼쳤다”⁸⁾와 같은 사실을 지목하는 등 1950년대 후반 징병제에 얽힌 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제언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제에 대한 국문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징병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일제 강점기 말기 국민총동원령 체제에 따른 징병제를 논하며,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징병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한 남성성의 문제에 천착한 사례는 김우영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⁹⁾ 징병제와 베트남 파병 등의 사안에 대해 1970년대의 『창작과비평』이 사실상 ‘침묵’의 태도를 보였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으로, 동 시기 『창작과비평』에 실린 소설 작품들에서 “군복무를 통해 국가의 호명에 답하는 청년들의 ‘매끄럽지만은 못했던’ 태도와 내면”¹⁰⁾이 발견된다는 점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 흔히 4.19 세대라 지칭되는 청년 남성 집단의 성장 과정에 관한 논의가 ‘대학생’이라는 신분과의 연계 속에 논의된 맥락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군대를 체험했음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었다는 문제의식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4.19 세대 또는 지식인 청년 남성의 ‘대학생’으로서의 신분은 곧 ‘학적보유병’으로서의 군대 체험과 곧바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김우영의 위와 같은 관점

6) 윤시원, 「1950년대 병역형평성 논쟁과 병역법 개정」, 『사림』 제71호, 수선사학회, 2020.

7) 위의 글, 214면.

8) 위의 글, 224면.

9) 김우영, 「남자(시민)되기과 군대 -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0) 위의 글, 108면.

은 본고의 문제의식을 선취하는 지점이 있다.

한편, 1950년대를 특정해 해당 시기의 남성성을 해부한 허윤의 연구 성과 또한 논할 필요가 있다.¹¹⁾ 허윤은 “한국전쟁을 거쳐 전면적인 개병제가 실시된 한국에서 군대는 청년들에게 남성성을 학습, 내면화시키는 장소이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1950년대 젠더 규범이 남성들의 동성사회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청년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라고 논한다.¹²⁾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중대하게 짚으며, “군사화된 남성성이 오히려 민족국가의 남성성을 훼손”하는 경우 또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¹³⁾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허위적인 구축과 관련한 젠더 수행성의 복잡한 전개를 고려해, 염상섭·정비석·손창섭의 세 작가를 각각 남성성의 미수행·남성성의 수행·남성성의 비수행을 대표하는 사례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전개한다. 한편, 송영의 1970년대 소설에 주목한 허윤의 다른 논고 또한 주목을 요한다.¹⁴⁾ 작가의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병역기피자, 탈영병, 군 교도소 수감자 등 인물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국문학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비군인’의 서사, ‘군인되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의 서사를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이어받는 동시에, 징병제의 정착 과정에서 당대 한국 남성이 겪은 심리적 갈등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더욱 면밀히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 작품의 선정일 것이다. 김우영의 적실한 지적대로, “휴전 협정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군 복무 및 병영 생활이 개인들에 어떤 의미와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11)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2) 위의 글, 32면.

13) 위의 글, 38면.

14) 허윤, 「거부와 기피 사이, 비(非)군인의 장소 - 1970년대 송영 소설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8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문제에 주목한 작품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¹⁵⁾ 다만, 징병제 확립 시기로서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을 소설적 배경으로 채택하고 청년 남성의 내면 의식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작품으로 시가의 폭을 넓히면 그 대상이 꼭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최상규¹⁶⁾¹⁷⁾의 첫 장편소설인 『형성기』(1972)¹⁸⁾는 이 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작품의 제목이 작중 남성 주인공의 ‘남성성의 형성기’를 지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거듭해서 그의 정신적 미숙함의 원인으로 군대 체험이 거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형성기』는 제대 남성의 미성숙이 극복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전쟁이나 군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당대 남성성의 형성과 관련해 군대 체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형성기』를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 번째로, 작중 군대 체험에 관한 서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들을 살펴며 1957년 이후 학적 보유병 및 징병제에 대한 당대의 시선을 살핀다. 두 번째로, ‘한지수’의 군대 체험에 대한 기억을 살피고, 그가 친구들에게 느끼는 열등감과 동류의식에 주목함으로써 당대의 청년 남성이 상정했던 한국적 남성성의 체계 모니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여성 인물을 바라보는 남성 인물의 시선이 지닌 문제와 후반부 갑작스레 남성 인물들과의 대결 구

15) 김우영, 앞의 글, 106면.

16) 최상규는 1956년 『문학예술』 지면에 「포인트」와 「단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 이래 1994년 61세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씬 없이 다수의 소설을 펴냈다.

17) 최순중은 따르면 최상규가 펴낸 작품의 편수는 각각 단편 123편, 중편 20편, 장편 7편에 달한다. 최순중은 최상규의 실제 창작 편수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이름이 바뀐 작품이 중복으로 계산되거나 중편 또는 장편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등을 문제시하며 작가의 문학 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했다. 최순중, 「최상규 소설의 시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3, 7-13면.

18) 최상규, 『형성기』, 삼성출판사, 1972. 이하 작품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괄호 안에 면 수만을 표시했다. 작품의 인용에서 한자 표기는 한글로 음차했으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자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병기했다.

도를 부각하는 문제에 특히 주목하여 남성성의 '형성기'라는 성장 서사가 위태롭게 서 있는 사상누각의 형태를 해부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군대라는 체제에 의해 강요된 남성성의 획일적 기획이 어떻게 개개인 남성의 개성적 서사를 붕괴시키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징병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남성을 작동시키는 유효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논의가 동시대의 한국적 남성성이 담지하는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언을 던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전쟁 이후 군대의 재편과 당대의 청년 남성

방대한 작품 편수를 고려했을 때, 작가 최상규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최상규 소설의 서사학적 특징이나 표현 기법상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실존주의적 경향이나 작품의 환상성에 주목하는 과정에서 그 작품이 담은 시대상에 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다소 덜 논의된 측면이 있다.¹⁹⁾ 이는 최상규 소설의 주된 화자로서

19) 최상규론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최순종의 사례다. 최순종은 최상규의 작품 세계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온 현실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작가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최상규 소설의 서사학·수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분석을 전개한다. 다만, 방대한 양의 대상 작품을 '표현'의 층위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논의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개별 작품의 '내용'에 관한 세밀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최순종, 앞의 글.

최순종의 사례에 앞서 이경재, 손혜숙, 이홍배 등이 2000년대 초 대거 제출한 학위논문의 사례들은 대체로 최상규 소설의 환상성에 집중하거나 내용 분석의 차원에서도 '인간 소외'의 주제의식을 탐구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최상규 소설의 인물 유형 및 관계, 소설의 진행 방향과 관련한 유의미한 제언을 던지는 연구의 사례로는 서동수의 논고를 들 수 있다. 서동수는 최상규의 50-60년대 소설이 일관되게 일대일로 대응하는 남성과 여성의 쌍을 보여주고 이들을 통한 성장의 서사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인물쌍이 부부로 설정되는 경우 남성이 유아로 퇴행하는 경향이 있고, 연인으로 설정되는 경우 퇴행과 성장에 관한 더욱 복잡한 서사가 구축된다는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경재, 「최상규 소설의 환상성 연구」,

의 청년 남성 인물의 내면이 시대적 불안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에 발생한 공백일 것이다. 최상규에게 당대 20대 남성의 내면 풍경을 파헤치는 일은 가장 중대한 소설적 과업이었고, 청년 남성의 정신적 불안을 초래하는 국가적 폭력을 지목하려는 숭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징병제로, 이는 학적보유병 관련 논란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됐던 1950년대 말 작가 본인이 군에 입대했었다는 사실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최상규는 1957년 공군 정훈장교로 입대한 이후 1961년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학적보유병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입대를 결정해야만 했던 시기에 청년 남성의 징병과 관련한 심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²⁰⁾

징병제를 전면화한 사례로, 최상규의 등단작이기도 한 「포인트」(1956)는 경제 활동을 아내에게 떠넘긴 빈한한 식자층 남성이 영장을 받고 느끼는 내면 풍경을 다룬 작품이다. “그날 아침 그는 영장을 받았다”²¹⁾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담담하고 건조한 문체로 일관되어 있지만 무신경해 보이는 청년 남성의 언행 곳곳에서 예정된 군대 체험에 관한 불안이 발견된다. 예컨대, 장작에 불을 붙일 불쏘시개가 없어 무의식중에 한 행동이라며 본인의 영장을 불에 태운다. 아내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손혜숙, 「최상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이홍배, 「최상규 소설 연구: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서동수, 「1950년대 최상규 소설과 성장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가장 최근의 연구 사례로는 『새벽기행』(1989)을 기호 분석의 관점에서 '인간 존재의 회복'을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평가한 정소미의 논고와 동일 작품을 카프카의 「변신」과 비교 분석한 최순중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소미, 「비물질적 기호의 의미생성과 사건의 반복— 최상규의 『새벽기행』론」, 『현대문학이론연구』 88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최순중, 「최상규의 『새벽기행』과 카프카의 「변신」 비교 연구 — 변신 모티프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통권 35호, 국제한인문학회, 2023.

20) 관련한 정보는 『형성기』에 수록된 '연보'(302-303)를 참고했다.

21) 최상규, 「포인트」, 『한국소설문학대계 34: 불꽃 외』, 동아출판사, 1995, 359면.

며 “어제와 같은 나”²²⁾라는 다짐을 반복하고, 아버지의 유품인 책을 헐값에 팔아넘긴다. 썸을 오래 치르는 헌책방 할아버지가 본인의 시간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비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어머니가 있는 아내가 본인과의 결혼 생활을 영장 발부를 계기로 청산하기를 바라고, 본인보다 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내에게 남모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징병과 관련한 복잡한 심경을 “나도 어른이 되었다”²³⁾라는 단순한 성장의 표현, “어제는 어른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른이 되었다”²⁴⁾라는 도식적 상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포인트」가 보여주는 결말은 이 지점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다. 영장을 태워버리고 ‘내일’을 회피하며 ‘오늘’의 연애만을 바라보겠다는 남성이, 영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어제’와는 달리 ‘오늘’ 본인이 어른이 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래의 자기 상황을 회피하는 유아적 인물이 본인이 성장했음을 근거 없이 강조하는 썸이다.

「포인트」가 초점화하는 것이 곧 군인이 될 남성의 불안이라면, 『형성기』는 군인이었던 남성 ‘한지수’의 일상을 다룬다. 그리고 그 대상 시기가 학적보유병 제도가 운용된 1957년부터 1963년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주목하고자 하는 ‘남성성’은 매우 특유한 시대적 맥락을 확보하게 된다. 명시적인 서술을 발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검증해야 하는 것은 『형성기』의 배경 시기를 실제로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단서가 소설 속에 제시돼 있다. 제대 이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수를 힐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주인공의 나이가 스물여섯 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²⁵⁾, 작품 후반부에서 주인공

22) 위의 소설, 362면.

23) 위의 소설, 375면.

24) 위의 소설 376면.

25) “그래, 그건 좋다. 축하해 주어야지. 그런데……년……네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해야지. 네 앞을 닦아야지. 난 참말로 그게 더 걱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다른 누구보다도 제 문제는 제가 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아무것도 아닐 뿐예요.” “년 꼭 어린애야. 네

의 출생 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삼촌의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구금된 주인공을 취조관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생 연도가 '193×'년임이 밝혀지는 것이다.²⁶⁾ 최상규의 실제 출생 연도인 1934년을 고려해 작가의 분신 또는 작가의 청년 시절을 암시하는 인물로 지수를 분석할 가능성이 생기는 설정이다. 꼭 실제 작가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형성기』의 대상 시기가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시기 사이임은 분명해진다.

위생병 백기영은 말했다. 자네가 내 동생의 동창이라니 참 뜻밖의 일 이로군. 자네가 그애를 알고 내가 그애의 오빠이니 자네하고 나하고도 서로 알면 알만한 사이쯤 되지 않겠나, 하하. 그애는 그때 병이 났었지. 늑막염이야. 어렸을 때도 좀 시원치 않던 것이 재발해서……그래 시골에 내려가, 이모부네 병원, 평택읍에 있지, 거기 입원했다가 어지간히 나은 담에도 몸이 쇠약해서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전 학교에 또 가겠다지만, 어른들이 그만두라고 하시니 그냥 여태 집에 있긴 하지만……모르겠어. 내 하나뿐인 누이동생인데……자네도 그래?……대학이나 마치고 해 주고 싶지만 나도 늦게야 이렇게 줄병신세니, 당장 내 힘으로는 못하는 일. 자넨 왜 학보병으로 나오질 못했나? 벌써 만 이년이 넘지 않았어? 잘 못됐어? 서류가? 허어, 그런 수가 가끔 있다고 하드그만서도……그래도 리없이 삼년 채워야 되는 거로군. 나야 몇 달 안남았으니까……뭐, 자네도 기껏 일년 아닌가? 자 취침시간이야 가서 자세. 또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밤에는 꼭 술이 있어야 하는건데……우리 이담에, 사회에 나간 댐에나 만나서 꼭 한잔하세.(53-54)

“이는 분이세요?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데……”

친구들은 다 그렇지 않더라. 윤석이도 하진이도, 또 진육이도……나이 스물여섯이면……”(27-28)

26) “본적은 서대문구 광수동 십륙번지. 주소도 같고, 성명 한지수. 서기 193×년 7월 19일생. 틀림없나?” “네.” “틀림없으면 틀림없다고 대답해!”(247)

신옥이 눈짓하는 저 편구석쪽에서 그를 향해 커다랗게 웃어주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다시 신옥을 향했다.

“한반 친구……나하고 같이 복교한 사람이죠. 일년짜리 군대생활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보다 두 해 아래고……”

무엇하러 그녀에게 이런 해설을 붙이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군대와 학교 사이의 햇수의 가감법을 알고 있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뿐만아니라 그녀는 셈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 가봐야겠어요. 저분하고 같이 앉아서 놀다오시려면……그렇게 하시고.”(86-87)

작품의 대상 시기는 징병제의 확립 과정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더욱 명료하게 추론할 수 있다. 지수가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학적보유병 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초반부 지수가 술을 마시며 군 생활을 회상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 동급생이었던 백기영의 오빠를 군대에서 우연히 만났음이 드러난다. 연모했던 동급생이 갑작스레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는 한편으로, 군 생활에 관한 청년 남성들의 한탄이 전면화되는 대목이다. 백기영의 오빠는 복교를 희망하는 여동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나 군인 신분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아쉬워한다.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한 처지를 타하면서, 백기영의 오빠는 지수에게 학적보유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그 답변에서 지수가 대학생 신분이므로 학적보유병으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상 가능했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병 복무를 하게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27) 다만, 1957년 당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일반병 입대 이후에도 학적보유병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7년 9월 23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문답을 통해, “일반 장정과 함께 응수한 후에 대학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와 입영기간 단축원을 구청을 거쳐 병사구령관

해당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우선, 대화가 학적보유병 제도의 시행으로부터 만 2년이 넘은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57년 8월 15일 「병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적보유병의 복무연한이 1년으로 설정됐고, 오랜 논쟁 끝에 1959년 2월 18일 「병역법시행령」을 통해 그 복무연한이 1년 6개월로 확정된 바 있다. 실질적인 학적보유병의 복무연한이 1년이었던 적은 없고, 병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이유로 1년 6개월의 복무연한이 유지되다가 1959년에 18개월의 복무연한이 시행령으로 명문화되었다.²⁸⁾ 대화가 이뤄진 시점에 지수의 군 복무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수의 입대 시기는 1957년 병역법 개정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1957년 후반~1958년 초에 입대해 1960년대 후반~1961년대 초에 전역했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지수의 군 복무 시기가 작가 최상규의 군 복무 시기와 사실상 일치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밝혀진다.²⁹⁾³⁰⁾

에 제출하면 학적보유병으로서의 병역 기간 단축의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1957년 10월 8일 자 『조선일보』에서도 이미 입대한 대학생 신분 장정의 단기 병역제 혜택 수여가 가능하다는 문답이 확인된다. 단순한 설정상의 오류일 수도 있겠으나, 이 지점에서 한지수가 병역 단축을 위한 제도에 일부러 접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학적보유병 신분이 되기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면, 대학생과 군인이라는 당대 한국 청년 남성의 두 신분 사이에서 한지수가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은 더욱 복잡한 성격을 띠는 것이 된다. 회기동고민생유관자, 1957.9.23., “입영단축원 내야겠는데”, 『경향신문』, 3면; 춘천에서『생문교부대학과 강석인, 1957.10.8., “응접실: 단기병역제혜택입을수있나?”, 『조선일보』, 2면.

28) 1957년 11월 7일에 김정렬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학적보유병의 군 복무연한을 1년 6개월로 연기하겠다는 담화를 냈다. “국방부로서는 1년으로 정한 병역법 정신을 살릴 방침이나 상비병력 72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병역법 15조를 적용하여 6개월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학적보유병의 복무연한연기”, 1957.11.08., 『경향신문』, 3면) 개정된 병역법을 부정하는 조치가 논란이 일자 58년 7월까지 현상을 유지한 이후 58년 8월부터는 병역법상의 1년 복무를 확정하겠다는 해명이 이뤄졌다. (“복무연한 학보병은 1년”, 1957.11.09., 『경향신문』, 2면; “학도병의 복무연한 1년으로 단축”, 1957.11.09., 『동아일보』, 3면) 하지만 관련한 조치는 1959년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문교부와 국방부의 견해차로 이뤄지지 못했으며(“학생징집은 어찌 되나”, 1959.1.20., 『경향신문』, 3면), 결과적으로 대학 재학 중 1년 6개월 복무를 골자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

학적보유병에 대해 차별적으로 주어진 군 복무 기간 단축 혜택은 당대 청년 집단 사이의 큰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군대 내에서도 직접적인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당대의 대학생들이 특권 계층으로 이해됐던 사실과도 관계되는데,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 이르기까지 재학생이 징집보류 대상으로 분류되어 대학이 합법적인 징병제의 기피처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은 당시 일종의 '신분'으로, 국가에 의해 단호한 처벌의 대상으로 서술된 징병 기피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국가 엘리트'로 간주되었다. 이승만은 대학생에 대한 징집보류 조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에 가까웠으나, 1956년 3월 돌연 징집보류제도를 철폐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도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11월 「재학자징집연기잠정령」이 폐지됐고, 곧이어 「병역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애초 담화에서 대학생의 복무연한을 2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 57년 8월에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학생에 대한 복무연한을 1년으로 과격적으로 단축해 통과됐다.³¹⁾

우선, 애초 이승만이 징집보류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병역법 개정안의 애초 골자가 당대 징병제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 표면적인 주장은 '국민개병원칙'에 따른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72만 명의 거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었다.³²⁾ 당시 대다수 국민에게 징집보류제 폐지가 병역의무를 부

29) 한지수와 최상규의 출생 연도에는 차이가 있다. 군 전역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1961-1962년에 한지수의 나이가 스물여섯이라면 그의 출생 연도는 1936년 또는 1937년으로 1934년생인 최상규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경험을 둘러싼 청년 시기의 불안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 본인의 군인 시절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0) 당시 육군의 군 복무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한지수는 복무 기간이 3년인 공군 또는 해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인다.

31) 강인화,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처리: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위의 글, 203-204면.

과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여겨진 것과 다르게,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징집 인원 확충을 위한 가장 간편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징집보류제 폐지가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결과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입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강조되는 한편으로, 특정한 신분과 직책의 차이에 따라 복무연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더 기묘한 형태의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당대 병역 기피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나 평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을 병역 기피자로 상정하고 특혜 집단으로서의 그들을 비판하는 글 또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경향신문』에 실린 한 시민 필진의 칼럼에서 “우리과 같이 빈약한 경제와 낙후된 문화를 가진 이 고장에서 대학이 무려 백이십이나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할 일이다”라는 서두와 함께 “대학풍년이 육이오사변 이후 급작스러이 시작한 것을 보면 징병기피를 위한 대학난발의 혐의도 없지 않은 것이며 이것을 기화로 하여 학원이 모리화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징집보류제가 정말로 국가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엘리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 문교부가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정책을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서술도 덧붙는다.³³⁾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입대한 학적보유병은 다른 훈련병들에게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심어주는 존재로 이해됐다. 당시 군 간부들이 “학보병만의 부대 편성은 비군대적이며 민주적이 아니라고 본다”라거나 “학보병 문제는 사회가 너무 그들만을 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나올 법도 하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례 또한 확인된다.³⁴⁾

32) 위의 글, 205-206면.

33) 김용갑, 「너도 나도 대학생」, 『경향신문』, 1956.04.29., 2면.

34) 「학보병 우대에 물의」, 『경향신문』, 1957.08.04., 2면.

『형성기』에서도 학적보유병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수는 본인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대학 후배인 성주를 귀찮아하고, 못마땅한 감정을 느낀다. 그 맥락에는 본인보다 한참 늦게 입학한 후배임에도 같은 해에 복학했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3년의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해 1년 만에 학적보유병으로서 군 복무를 마친 후배와 학년이 같아졌다는 사실에서 국가적 차별에 대한 감각이 돌출한 것이다. 이는 기실 지수 또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문제로 인해 더욱 미묘한 감각이 된다. 지수는 성주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리라 단정하며 “군대와 학교 사이의 햇수의 가감법을 알고 있지 않고는 쉽사리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87)라고 서술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신옥의 모습에 다행스러움을 느낀다. 이는 대학생인 동시에 학적보유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중의 신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이 타인의 시선에서 지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데 대한 방어적 태도일 것이다.

한편, 학적보유병은 일반 훈련병이나 군 간부에 의해 심대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기도 했다. 국가가 행한 차별이 그에 대한 불만의 직접적 표출로, 군대 내의 폭력 행위로 이어진 셈이다.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1962년의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으로, 군대 상관들이 학보병 출신 일병의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무단으로 돌려 본 일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관련한 이의 제기에도 오히려 폭행이 이어지자, 최 일병이 두 명의 선임을 총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다 제지당했다. 당시 군부 정권은 해당 사건을 상관 살해 사건이자 비사회적인 최 일병의 범죄 행위로 단정했고, 사형을 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음에도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되었다.³⁵⁾ 학적보유병에 대한 군대 내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

35) 관련해서는 『대학신문』의 1962년 8월-1963년 3월 기사들을 참고했다. 『대학신문』은 최영오 군을 반사회적인 성향의 인물로 취급한 당시 군부 정권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연애편지’라는 소재에 골몰해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는 기성 언론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해당

고 있음을 가시화한 사건인 동시에, 군 기강을 더욱 강력히 확보하고 국민 통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 당시 박정희 군부 정권의 빌미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학적보유병 제도는 폐지되었고, 이로써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금에까지 이어지는 국민개병제도의 정신이 공식화되었다.

한편, 『형성기』를 학적보유병 제도를 둘러싼 당대의 논란을 적극적으로 주제화하는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학의 영역에서 사실상 논외의 문제로 취급되어 온 국민개병제도 정착 과정의 혼란상과 당대 청년 남성의 불공정하다는 감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형성기』가 단순히 학적보유병 제도를 거론했다는 점에서만 유의미한 작품인 것은 아니다. 작중의 초점 인물인 한지수가 군대 체험을 계기로 제대 이후에도 사회와 불화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형성기』는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적 남성성이라는 헤게모니가 개개인의 청년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텍스트이다. 그 헤게모니가 소설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서사의 개연성을 무너뜨리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형성기』는 고정된 어떠한 규범이 아닌 구축과 해체를 반복하는 유동하는 것으로서의 한국적 남성성을 포착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3.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패하는 제대 남성

어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다. 참 궁금하다. 다른 친구들은 편지도 안해 준다. 윤석이기도 하진아도……. 윤석이는 중위가 되었겠지. 하진이는 여태 토본국³⁶⁾에 나가고 있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써보내 다오. 서울에 살고

사건을 살필 때 유의미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36) 작가의 의도적 오기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황상 내무부 산하의 '토목국'의 오자로 보인다. 도

있는 너희 네 사람끼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골라서 하고, 나에겐 하기 싫건 좋건, 술값이 모잘라 시계 잡혔다는 이야기 따위의 이야기를 써보내다오. 두 친구에게 안부전해 주기 바란다.(13)

“중호한테서는 그 뒤로 편지 안왔지?”

“아니. 내 편지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도 몰라. 답장 안하는 성미가 못되는데……”

“고생일거라. 편지 쓸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고된지도 모르지. 출근 또 오죽 चुפט니?”

윤석의 입에선 거침없이 인정이 유로되고 있었다. 지수는 그게 반가웠다. 그래 물었다.

“배불리 불고기를 먹고 걱정하기엔 좀 메시꺼운 일이다, 그런 건.”

“메시껍다구?”

“그럼 제삼자가 듣기엔 말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멋대加里없이 대드니, 대들길……”

“내 경험이다. 내가 전방에 있을 때, 너희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혹시 나를 생각할 때는 제발 너희들의 뱃속이 비어 있기를 원했다. 이왕이면 그런 종류의 걱정을 해받는 것이 제격이란 말이야. 윤석이야 책상 앞에 앉은 유한급 무관이니 그런 심리를 알 리 었지³⁷⁾.”

“잘한다, 잘해. 이젠 너하고는 만나지를 말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자랄수록 비열해지니……”(74)

『형성기』가 주목하는 청년 군인의 모습은 무용하고 무기력하다. 국가가 부과한 의무이기에 군 복무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군인이라는 본인 신분에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임무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이뤄지

로, 교통 등 토목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부서로 1955년 2월 17일에 신설된 이후 1961년 10월 1일에 폐지되었다.

37) ‘없지’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라고는 하지만 싸워야 할 적이 없고, 마땅히 할 일이 없으며, 그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로 복무연환을 채워야 한다. 이로부터 청년 남성은 이유와 목적이 없는 진공 상태가 강제적으로 부여될 수 있음을 학습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상황 속에서 폭력에 순응하는 태도를 체화한다. 지수 또한 군인으로서의 시기를 철저히 무력했던 시절로 회고한다. 지수는 '천덕꾸러기 줄병'으로서의 군대 시절에 본인이 주정뱅이였음을 떠올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찾은 것은 없었다"(51)라고 단언한다. "싸우지 않는 병정의 서글픔을, 싸워 목숨 잃은 병사의 쓰라림처럼 겪어 온 그는 밖으로 신장하는 대신 안으로 응집하기를 원했다"(52)라는 설명과 함께, 술을 마신 이유가 본인의 실존을 단 한 점으로 뭉쳐 축소해 버리는 일에 있었음을 역설한다.

지수가 주정뱅이가 된 계기인 윤 중사에 관한 서술 역시도 주목을 요한다. 중학생 시절의 선배로 설명되는 윤 중사는 일반 병사들의 식량값을 훔쳐내어 술을 사 마시고, 술에 취해 병사를 때리거나 갈보집으로 향하는 부덕한 인물로 그려진다. 군인으로서의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한들 틀어쥔 돈으로 계속 술을 사쳤기에 지수는 그와의 친분을 유지한다.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뤄진 이후 윤 중사가 어느 날 수송 차량에 깔려 죽었다는 언급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허무한 퇴장에 대해 지수의 신경은 온통 술을 더 마실 수 없게 됐다는 사실로 쏠린다. 윤 중사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술을 준다는 이유로 유보했다는 점도 문제적이지만, 지인의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 버린 상황은 특히 충격적이다. 군대에서의 "한가하고 배고픈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이십사시간을 지내야만"(52) 한다는 지수의 불안은 군대 체험의 무용함을 부각한다. '맑은 정신'에 대비되는 "우매의 극치"(52)로서의 음주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군대는 버티기 곤란한 곳이다. 비이성적인 상태에서만 버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군대에서의 무기력한 삶은 ‘인간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삶이기도 하다.

한편, 군에서 체득한 무기력의 상태는 군 제대 이후에도 지속된다. 달리 말해, 제대 남성은 군 복무 당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패한다. 복학 이후에도 지수의 학업 성적이 좋은 것으로 서술되고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지수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된다. 자기 앞날을 도모하지 않고 학생 신분에만 안주하는 지수에 대한 부모의 걱정 또는 연민이 우선 그 문제를 가시화한다. 진욱의 등단을 축하하는 모임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수의 요청에 어머니는 마땅찮은 태도를 보인다. 지수의 주변 친구들이 이미 사회인임을 고려했을 때 스물여섯의 나이에 본인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자기 아들이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버지 또한 지수의 방황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삼촌과 불화하는 지수를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작품 말미 지수가 삼촌에 의해 감옥살이하게 된 일에 대해서도 방관한다.

부모로부터 지적되는 지수의 미성숙은 그의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가시화된다. 군 복무 중인 친구 중호를 제외한 세 친구는 지수와는 달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윤석은 중위 계급의 군인이고, 하진은 토목 분야의 기사보로 근무한다. 진욱은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가 마침내 등단에 성공했고, 이로써 문필가로서 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진욱의 “인제 처음이지만 적은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나를 고무해주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된다는 말이나 “인제 비로소 내가 발붙일 곳을 찾았고 내 보람을 느낄 디딤돌을 찾았으니, 나는 앞으로 애써 나아갈 거야”와 같은 말이 섞인 등단 소감(39)은 지수의 어머니가 건넨 “넌……네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해야지, 네 앞을 닦아야지”라는 걱정(27-28)과 공명한다. 사회에서 일정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은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되는 셈으로, 이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오직 지수만이 미처 성인이 되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지수의 세 친구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지수와의 갈등이 가장 잦은 윤석이다. 그는 일시적인 군인 신분을 경험한 것이 아닌 직업 군인이라는 점에서 지수와 차별화된다. “장교님은 졸병 출신 대학생의 지각이 아무래도 불만이신가?”(31)와 같은 지수의 흰소리에는 국민개병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를 마친 ‘졸병 출신’의 일반적인 남성과 군인을 본인의 지속적인 업으로 삼은 남성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가시화한다. 이는 윤석이 지수에게 대든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갈수록 비열해진다는 식의 비난을 가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일시적인 군인 체험의 과정에서 국가가 원하는 군인의 상을 체득하지 못한 개인은, 그로써 국가주의적인 허상에 다름 아닌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남성은 그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에 열등감을 느낀다. 지수의 입장에서 윤석은 남성성을 획득한 남성, 정말로 군인이 된 남성이며 본인은 일시적으로 졸병 체험을 해본 것에 불과한, 가짜로 군인이었던 남성이다.

한국전쟁을 통과하며 한국 남성성의 헤게모니가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음은 다수의 논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루인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시기에 남성-개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 스스로 군사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남성적 민족성의 핵심이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신념 아래에서 ‘남성적 신체’의 형상이 규범화되었다고 논한다.³⁸⁾ 권인숙은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강대국의 개입을 거치며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논리”가 한국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국민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 방어의 역할이고 한국에서 이를 결정짓는 것은 징병제”라는 공식이 성립했음을 거론한다. 덧붙여, “징병제는 남성이 더 온전한 국민 정

38) 루인, 「남성 신체의 근대적 발명」,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36면.

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군대의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형성하는데 기능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³⁹⁾

관련해서는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일단락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이 ‘전시 상태’라는 판단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리오 브로디는 “남자다움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전시의 남자들은 평시보다 훨씬 가혹하고 극단적인 전선에 내몰린다”라고 논했다. 그는 “전쟁은 남자가 되는 일정한 방식들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방식들은 무시하거나 의문시한다”라고 평하며 “전시 남성성은 평시 남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보다 훨씬 편협하고 전통적인 남성 행동 양식을 일제히 강조함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서술한다.⁴⁰⁾ 한편, 리오 브로디는 “전시 남성이 평시 남성으로 전환되는 방식에도 흥미를 느낀다”라며 전쟁으로 인해 단순화한 남성성의 상이 평시가 된 이후의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⁴¹⁾ 이보다 더 나아가 전쟁과 남성성의 등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정된 상으로서의 남성성이라는 편견을 부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리오 브로디가 제기한 문제는 지수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자 할 때 유효한 수단이 된다.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지수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는 ‘전시 남성’이 되라는 명령이다. 하지만 지수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라기보다는 평시 상태이며, 군대에서도 전시에 준한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공백 상태로서의 3년의 군 생활은 전시 남성으로서의 가장(假將)일 뿐으로, 강요되는 전시 남성성과 ‘평시 남성’으로서의 자기 인식 사이에서 지수는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리오 브로디의 적실한 지적대로 전시 남성성의 작동 방식이 흑백 논리와 강

39)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52-53면.

40) 리오 브로디, 김지선 옮김,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 삼인, 2010, 18면.

41) 위의 책, 22면.

자·약자 구도의 단순화에 있다고 할 때, 직업 군인인 윤석이 남성성을 확보한 강한 남성이라면 지수는 질병 체험을 해봤을 뿐인 약한 남성이 된다. 후술하겠으나 지수가 윤석을 비롯한 너무도 많은 남자를 적으로 상징하고 그들과의 무의미한 대결을 시도한다는 점 역시도 이상의 모순적인 남성성 인식에서 기인한다. 전시 남성성의 기제가 당대의 청년 남성들이 쉽사리 공감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징병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이를 강제함에 따라, 적과 편 또는 강한 남성과 약한 남성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설정하고 본인을 약한 남성에 위치시키며 분열하는 기이한 남성성이 형성된 셈이다.

감흥이라면 좀 우스운 표현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등속의 생각이 국방색 방한모 속에서 문득문득 들끓고 있다. 너는 웃을 것이다. 웃어 마땅한 일이다. 얼음보다도 차가운 MI소총의 총신도 나를 냉소하고 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나는 움트는 초목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은 너의 주변을 서성거리며 이 산상의 영광을 사퇴할 생각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없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노오랗고 메시꺼운 계절이다. 그 계절이 노오랗고 메시꺼운 한, 나는 맞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므로 그런 계절을 시사하는 너희들의 편지도 일체 받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차라리 누가 죽었다던가, 자동차에 치었다던가 만년필을 강물에 빠뜨렸다던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다던 하는 등속의 보도는 내 마음에 보다 깊고 순수한 정념을 일으켜 줄 것이다.(138-139)

한편, 군대에 가 있는 친구인 '중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다. 하진과 진욱이 경제 활동을 하며 성인 남성의 세계에 진입한 인물로 유형화되고 윤석이 직업 군인으로서 가짜 군인이었던 지수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인물로 기능한다면, 중호는 지수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게

끔 하고 가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질감을 형성한다. 종호는 작중 한 차례도 실제로 등장하지 않지만, 종호가 진욱과 윤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군대에서의 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작중 반복해서 상기되는 종호의 빈자리는 군대가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임을 가시화하며,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드러나는 종호의 심정 역시도 그 문제를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이는 군 생활 중에 “혹시 나를 생각할 때는 제발 너희들의 뱃속이 비어 있기를”(74) 원했다는 지수의 심정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 종호는 누군가의 부고나 사고 소식, 사소하거나 중대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 등 “내 마음에 보다 깊고 순수한 정념”(139)을 일으킬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면 편지를 쓰지 말라고 일갈한다. 이는 앞서 편지로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던 부탁과는 괴리감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상에 대한 희구가 일상에서의 비극을 소망하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변질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편지에서 드러나는 종호의 분노는 결국 친구들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격리된 공간’으로서의 ‘군대’에 대한 것이다. 관련해서는 종호의 입장에서 묘사되는 군대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진욱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호는 흑한기의 고단함을 논하는 한편으로 군대에서 겪은 작은 에피소드를 전한다. 입이 얼어 발음이 뭉그러진 줄병 한 명이 소대장님의 바지 단추가 잘못됐음을 어리숙하게 말한 일에 부대원 전체가 웃었다는 일화로, 진욱은 그에 대해 “유모어가 없긴 없군”(13)이라는 단평을 내린다. 짝막하고 소박한 위의 이야기는 전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이 같은 일정이 되풀이되는 군대의 일상을 드러낸다. 이는 버틸 수 없이 무료해 오직 술로써만 견딜 수 있었다는 군 생활에 대한 지수의 소회와도 연결된다. 한편, 윤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갑작스레 분출하는 종호의 분노는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군 생활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다소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너는 웃을 것이다”(138)라는 종호의 말은

기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종호는 시·공간적으로 격리된 군대 안에서 본인이 더 철저히 고립되기를 희망하기에 이른다. 사회와의 단절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에서의 일상을 듣기보다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아예 끊기기를 바라고 만약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그것이 비극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종호와와 '편지'라는 매개를 분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수가 보내는 편지이다. 지수는 오직 종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만 본인의 내밀한 심리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수가 이 편지에서 본인의 상태를 '태아'에 비유하는 한편으로, 태아라는 상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수의 미성숙을 지적하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 지수가 '어른'이 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면, 종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수는 어른이 될 생각이 없으며 "부모에게 양순히 사육되기만 하면 그만"인 본인의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운" 신분(78)을 '태아'라고 칭한다. 더 나아가, 지수는 '태반'이라고도 지칭되는 본인의 현 상태가 외부에 의해서 방해받기 시작했음을 논하기도 한다. '쥐'로 비유되는 외부는 태아 상태의 지수 본인이 이제는 출산되어야 함을 알리는 방해꾼으로, 결국에는 어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를 지칭한다. 지수는 본인의 태아가 끝난 이후의 결과가 "유산이 될지 조산이 될지 만산이 될지, 그건 그때 봐야 하는 것"(80-81)이라고 말하거나 "이만한 예견을 가진 태아에겐 자살쯤 허용되어도 좋지 않을까"(79)라고 자조하는 등 불안감을 표출하는데, 그것은 대학생 생활을 마친 이후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성인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발견되는 지수의 심리는 앞서 윤석에 대해 내비친 적개심과는 전연 다른 것으로, 전시 남성 또는 강한 남성과의 같은 국가가 유도하는 이상적인 청년 남성의 상을 회구하거나 그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되기를 거부하는 감각이다. 달리 말해, 지수는 청년 남

성이 응당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과 인식에서 유예된 ‘태아’의 상태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이 희망 속에서 군대는 규범적인 남성성 요구로부터 격리된 역설적인 상징이 된다. 군대의 목적과 이상과는 별개로 지수가 겪은 군대는 전시 상태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시에 군대가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이었던 덕으로, 지수는 군대에서 철저한 태아의 상태를 경험했고 제대 이후에도 그 상태가 무기한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수는 종호와의 소통에 실패한다. 진옥과 윤석에게 답장을 보냈던 것과 달리, 종호는 지수에게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사회로 복귀할지라도 군대에서의 ‘정지 상태’가 유지될 것임을 예언하는 지수의 언사가 그로부터의 탈출만을 고대하는 종호에게 가닿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4. 남성성의 형성기, 또는 남성성 신화의 붕괴

그녀는 돌아섰다. 검은 머리로 싸인 얼굴. 계란빛 이마. 꼬리가 긴 얇은 눈썹아래, 둥글고 검은 눈날이 충만해 있는 짙막한 코. 도드라진 인중과 소복한 입술. 얇은 그늘이 세로 그어진 턱. 흰 스웨터의 벌어진 앞섶 사이로 보이는 노랑색 블라우스는 무거운 가슴을 정지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가 손을 찌르고 있는 두개의 플레킷 중 오른편 것에는 임시 방편으로 풀로 붙여 다림질한 튜올립의 아플리케가 있었다. 그것이 거기 있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것은 거기 그녀의 비밀한 것을 전부 담아가지고 정해진 용량과 결정되어진 형태로 놓여 있었다. 그와 그녀와의 사이의 거리, 이 미터 남짓. 그 사이는 그 방안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기 온도 습도가 메꾸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관계’가 있었다. 아무도 막지 못할, 아무도 저것으로 하지 못할 절대의 관계가 있었다.(160)

강자와 약자,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친구 무리 사이에서 오직 지수만이 애인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더 심화한다. 진욱은 신옥과 결혼했고, 윤석과 하진에게도 각각 미스 조, 수임이라는 애인이 있다. 여성과의 교제라는 문제에 있어 서도 오직 지수만이 미성숙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진욱의 등단을 축하하는 모임에 각자의 애인이 함께하고, 이 때문에 오직 지수만이 홀로 모임에 참석했다는 서술은 이 문제를 더 강렬하게 전면화한다. 지수가 여성과 교제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의 군대 체험이 남성성 획득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정희진에 따르면 “군대의 존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남성다움을 검증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고, 그들의 경험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보호, 여성들의 고마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⁴²⁾ 지수의 군대 체험에서는 철저하게 여성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으며, 첫사랑으로 묘사되는 백기영 또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느 날 대학에서 사라진 인물이다. 군대에서 알게 된 백기영의 행방은 오히려 그녀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음을 확인받은 것에 가깝다. 지수가 군대를 무(無)의 상태로 이해하는 근원에는 결국 군대를 통해 지켜야 할 ‘여성’이 없다는 자기 인식이 깔려 있다.

기실 『형성기』는 가장 첫 에피소드에서부터 여성을 대하는 지수의 어리숙함을 전면화한다. 진욱의 집을 향하던 중 비가 내리자, 한 여성의 우산 속으로 아무렇게나 파고들어 불쾌감을 주는 것이 지수의 첫 등장이다. 진욱의 집에서 지수의 미성숙을 문제시하는 대목이 이어진다. 진욱이 종호에게 편지를 부치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지수는 잠시 쉬겠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 그 사이 진욱의 등단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신옥이 이불 속에 있는 지수를 진욱으로 착각하고 애교

42)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271면.

쉬인 목소리로 말을 건네거나 손을 간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본인이 진옥이 아님을 재빠르게 말하지 못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이로 선연한 성적 욕망을 감지한다. 이후에도 진옥과의 만남에서 그녀의 손을 보고 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에 관한 망상에 빠지거나, 진옥과 진옥의 성적인 관계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지수와 진옥의 사이에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지만, 여성과의 성적 결합을 갈망하는 지수의 내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임은 분명하다.⁴³⁾

『형성기』를 일종의 성장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 지수가 성장하는 계기 역시 작중의 여성 인물인 ‘지한녀’와의 관계에 있다. 성주와의 만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물인 ‘서동환’의 집에서 지수는 얼핏 백기영을 닮은 여성을 만난다. 지수는 첫사랑을 닮은 한녀에게 자연스럽게 끌림을 느끼고, 서동환이 집에 없을 때를 틈타 자주 한녀를 만난다. 한녀와의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과의 사랑을 이뤄낸 지수는 일련의 갈등을 이겨내며 마침내 모종의 성장을 이뤄낸다. 문제는 소설의 중반부에서부터 등장하는 한녀와의 관계에서 지수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일에 있다. 이와 동시에, 지수가 한녀와의 사랑을 쟁취하고 그녀를 서동환으로부터 구출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작중의 한녀가 지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서술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43) 본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못했으나, 지수가 자신의 누이인 ‘미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다. 미원은 가족들로부터 지수보다 더 인정받는 경제적이고 모범적인 인간형으로 서술되는 한편으로, 지수에 의해 박색하고 외로운 여성으로 평가된다. 작중 지수는 미원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고, 그와 형제 관계임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대목도 발견된다. 소설을 끝맺는 문장이 “그는 마음속으로 외로운 미원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301)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한녀를 만나러 가는 지수 본인을 배웅하는 미원을 마치 자신의 반대향인 것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태도에서 여성을 ‘외모’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남자와 사랑을 하는가의 여부’가 여성의 삶을 좌우한다고 이해하는 지수의 여성 인식이 드러난다. 남성성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한편으로, 지수라는 편협한 인물의 내면을 초점화함에 따라 여성 인물의 재현과 여성성의 탐구에 실패한 것은 『형성기』의 분명한 한계일 것이다.

지를 살필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는 삼촌의 차를 훔쳐 타고 한녀와 무작정 드라이브를 떠나는 대목을 훑아보아야 한다.

지수는 한녀와 본인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불안 속에서 한녀가 본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206)라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를 요청한다. 이때의 과거란 그녀가 서동환 씨의 집에 가정부로 머물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다. 한녀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로 생활고에 시달려 돈을 벌기 위해 백주홀에서 근무했고, 그곳에서 만난 서동환의 “얼마짜리냐?”(211)라는 질문에 ‘오천 원’이라 답하고 사흘간 그의 아파트에서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그 사흘 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죽어버렸고, 이에 서동환이 끊임없이 사과하며 그때부터 한녀를 ‘사육(飼育)’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사육’이라 함은 그녀를 명목상으로는 가정부로 두되 사실상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한방에서 자지만 성관계 또한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그의 집에서 계속 ‘살아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녀는 “아무 미래의 설계도 없고, 지난날에 대한 회한소차⁴⁴⁾ 느낄 수 없는 텅 빈 공백의 상태 속에 하루하루”(213) ‘살아만 있도록’ 하는 삶을 살던 중 만난 지수가 “난생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본 느낌”(214)을 줬다고 말하고, 지수와 의 만남을 기점으로 공백 상태를 벗어나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한녀를 사육하는 서동환의 태도는 그녀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내포한 동시에 그녀를 소유하고자 하는 폭력성을 담지한다. 서동환의 기이한 가부장제적 요새 속에서 한녀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것은 서동환이 한녀를 인간 이하의 존재, 일종의 수집품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지수와 한녀의 사랑은 전통적인 영웅 서사에서의 ‘공주 구출’ 단계와 유사한 것이 된다. 실제로 한녀의 고백 이후 지수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녀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설의 말

44) ‘회한조차’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미에 마침내 서동환으로부터 한녀를 데려가도 좋다는 수락의 말을 듣는다. 문제는 예의 성장과 남성성의 획득을 위해 작품의 후반부에 준비된 갈등의 내용과 그로부터 은폐되는 사실들이다. 지수의 미성숙은 국가에 의한 전시 남성성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거듭 실패하는 문제와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작품의 후반부에서 돌연 이 문제들은 논외의 대상이 된다. 삼촌의 고발로 지수가 감옥에 갇히는 설정으로 인해 오히려 다시금 주인공이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소설은 지수가 적으로 상징되는 남성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요구한다.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삼촌에의 복수, 서동환과의 대결이 서사의 가장 중대한 축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수의 성장이란 다른 남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가 모두 지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지수의 ‘형성기’가 무엇을 형성하고자 했는지의 문제는 공허하고 모호한 것으로 남는다.

“야! 이게 네짓이 아니라곤 못하겠지?”

그는 그제서야 백작의 분노의 원인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회심의 웃음을 입가에 흘려내었다.

“웃어? 대답을 해, 임마!”

백작이 사뭇 씨근거리고 있었다. 그는 방 가운데 우뚝 선 채, 백작부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커다란 눈을 뜨고 새빨간 작은 입으로는 피어 오르는 미소를 물고 있는데, 화사한 그 본래의 얼굴 위에는 누우런 젤리 같은 정액이 발려져 있었다. 도시에 사는 대학생의 수음과, 진짜 정액으로 마사지한 가련한 유리상자 속의 요화(妖花).

“대답할 말이 없군요.”

“뭐라구?”

백작은 노성을 내지르고는 벌떡 일어섰다. 자식이, 하며 백작의 오른손은 그의 뺨을 후려쳤다. 따끈따끈한 얼굴에 차가운 감촉이 날쌔게 스

쳐 지나가자, 반짝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오른쪽 뺨을 내대었다.(58)

“가지고 가게. 한녀는 지금 감금되어 있어. 내가 이 열쇠를 자네에게 주는 것은 결코 자네들의 사랑을 축복해서가 아니야. 내 마음은 오히려 그 반대야. 그렇다고 자네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한녀의 태도에 감복해서도 아니야. 난 그렇게 로맨틱하게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유는 한 가지. 난 자네가 귀찮아졌어. 난 자네를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 앞으로 귀찮게 굴 자네를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기 위해서는 난 또 어떤 방법을 써서 자네를 처치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또 그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는 그 처치의 방법을 바꾸어 자네를 놔둬버리는 거야. 자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라고. 갖고 싶은 것을 갖으면 다신 내 앞에 얼신거리지 않겠지. 그것만은 분명히 해줘야 해. 열쇠는 수위에게 맡겨 줘. 그리고 다시는 자네나 한녀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그것을 조건으로 이 열쇠를 빌려주네. 그 약속을 할 수 없으면 열쇠를 이쪽으로 떨어놓게.”(291)

지수와 아버지의 갈등은 『형성기』의 초반부에서부터 제시된다. 다만, 지수의 미성숙을 지적받은 데 대한 어머니와의 언쟁과는 달리, 지수와 아버지의 대립은 삼촌이라는 존재로부터 비롯된다는 차이가 있다. 지수는 독신자이면서 자기 형의 집에 얹혀사는 삼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 그가 본인과 같은 방을 공유한다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 삼촌에 대한 배려는 아버지에게 의해 강제된 것으로 여겨지고, 삼촌과의 갈등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들이 아닌 형제의 편을 드는 아버지에게 미움을 느낀다. 아버지가 삼촌을 돌봐주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 계기를 지수에게 비교적 상세하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의 속죄를 위하여,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171)라고 응수한다. 최상규 소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구도가 자주 발견된다는 일반적인 이해 아래

에서 『형성기』 또한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⁴⁵⁾ 기실 아버지와 관계는 지수를 중심으로 한 서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지수를 감옥에 보낸 일로 아버지와 삼촌이 크게 싸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도 지수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무위는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296)라고 자문한다. 이는 아들이 수감됐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지는 문장인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확장되는 기성세대 남성들의 자식 세대에 대한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내비치는 서술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이상의 사회로 말미암아 지수가 아버지에의 심정적인 독립을 해낸 것이라면, 이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자동적으로 해소된 갈등에 불과하다.

작중 지수와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인 삼촌과의 대결 구도 또한 다소 허무하게 해결된다. 삼촌과 지수의 갈등은 총 두 차례 사건화 되는데, 하나는 지수가 삼촌이 아끼는 도자기 인형에 수음(手淫)한 일에서 비롯되고 다른 하나는 지수가 삼촌의 차를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탈해서 벌어진단다. 『형성기』가 오직 지수만을 초점화하고 미원이나 진옥 등 그의 조력자가 지수의 심정에 동조해 주는 태도로 인해 언뜻 삼촌이 악인으로 보이지만, 두 갈등의 사례 모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수에 있다. 삼촌이 아끼는 인형인 백작 부인에 대고 수음하며 정액을 바

45) 일례로 최영자는 『형성기』를 「건곤」, 『악령의 늪』 등 최상규의 대표작과 비교하며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의 “신경증적 불안의 원인은 후기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적 주체의 거세 공포에 기인한다”라고 서술한다. 이어, 이 “거세불안에 따른 다양한 신경증적 증후군들은 상징적 아버지에 대한 부정임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기원적 아버지에 대한 열망인 것”이라 설명한다. 그 증거로서 『형성기』의 아버지와 삼촌을 중심으로 한 기형적인 가족 관계를 지적하거나 지수의 성적 도착증을 거론하고, 계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삼촌을 감싸는 아버지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지수의 심리를 지목하기도 한다. 다만, 다른 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과 비교했을 때 서사적으로 주요한 갈등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형성기』 속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에 대한 강한 살해 욕망’이나 ‘초자아’와 같은 개념으로써 분석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 최영자, 「아버지 찾기 서사로서의 최상규 소설」, 『구보학보』 4집, 구보학회, 2008, 240-245, 256면.

르는 행위는 삼촌에게 직접적인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벌인 일이고, 삼촌의 차를 훔쳐 타는 일 또한 그를 골려주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다. 지수가 삼촌에게 위와 같은 악행을 벌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다시금 남성성의 헤게모니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독신자이면서 자기 형제의 집에 얹혀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삼촌은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했고 경제적인 독립에 실패한 남성이다. 지수는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삼촌이 아직도 성인이 되지 못한 일에, 그가 '강한 남성'이 되지 못한 사실에 우월감을 느낀다. 백작 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는 삼촌이 가진 '여성'의 지표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그의 자동차를 훔치는 행위는 삼촌의 유일한 사적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지수가 삼촌에 대해 느끼는 적개심은 지수가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의 원인을 돌이켜 보건대 자기혐오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요구되는 것으로서의 이상적인 남성성이 획득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불안감을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남성을 억압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리오 브로디는 “평시 세계에서 남성성의 정의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은 그 불안감을 감추려고 오히려 더욱더 마초성을 강력하게 내세우려는 동향을 보이기도 했다”라며 전후 남성성의 약점을 서술한 바 있다.⁴⁶⁾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서의 동성애 혐오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남성성의 불안을 억제하고자 더 악한 남성성을 가진 남성을 공격하는 논리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사례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는 서술이 될 것이다. 삼촌의 차를 훔친 죄로 인해 수감된 지수의 삶이 생리적인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대목은 이 점에서 흥미롭다. 지수의 '남성성'이 형성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수는 삼촌에 대한 복수심과 서동환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한녀와의 성적 결합을 상상하며, 감옥의 불결한 냄새에 점차 익숙해지거나 식욕과 수면욕을

46) 리오 브로디, 앞의 책, 733면.

포함한 생리적 욕구를 실험당하는 등의 극한의 상황에 부닥친다.

한편, 서동환은 삼촌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지수의 남성성 불안을 강화하는 인물이다. 가정부라는 기묘한 형태로써이지만 한녀와 같이 살고 있고,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둘 사이의 갈등은 서동환이 지수에게 직접 한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점화된다. 이에 대해 지수는 한녀가 서동환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운다. 한녀와 서동환 사이의 ‘어떤 내밀한 관계’에 대해 본인이 ‘국외자’로서 개입할 수 없다면 한녀와 지수 본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외자인 서동환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녀씨는 서선생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183)라는 분명한 선언과 “서선생님과 저는 서로 관계없는 국외자인 채, 살아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187)라는 비아냥을 들은 끝에 서동환은 크게 분노한다. 이 때문에 한녀에 대한 서동환의 감시가 심해진 상황에서 한녀와의 드라이브가 이뤄지므로, 지수의 투옥은 삼촌과 서동환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 각기 진행되는 갈등의 교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형성기』가 이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수와 한녀의 재회를 성사시키는 방법은 다소 허무하다. 지수의 죄가 벗겨지는 까닭은 삼촌의 사업에 부당한 면이 있어 그가 입건되었기 때문이고, 삼촌이 그 자동차를 수단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표현과 함께 지수의 행위가 내포한 잘못은 자연스레 무마된다. 서동환과의 대립 또한 지수가 실질적으로 행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지수의 수감과 그 원인에 한녀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서동환이 “난 자네가 귀찮아졌어”(291)라며 갑

47) 서동환은 서른여덟의 나이로 지수와는 열두 살의 터울이 있고,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으며 육군 대위 출신의 인물이다. 이러한 설정에서도 전시 상태를 직접 경험한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지수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앞선 지수와 윤석의 대비를 다시 적용해, 전시 남성의 상태를 실제로 경험한 서동환을 지수와 비교해 더 강한 남성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서동환과의 갈등은 ‘여성’을 둘러싼 대결이기도 하지만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문제를 둘러싼 강한 남성(전시 남성, 기성 남성)과 약한 남성(평시 남성, 신세대 남성)의 대결이기도 하다.

작스레 한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앞으로 눈에 띄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수는 한녀를 조건으로 본인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한 서동환의 태도에, 그가 건네준 열쇠에 모멸감을 느낀다. 그러나 곧바로 열쇠를 서동환이 준 것이 아닌 자신이 얻은 것이라 합리화하고, “서동환은 불가항력으로 그것을 내놓은 것이며 지수를 “모욕함으로써 최후적으로 그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였다”(300-301)라고 생각한다. 이 곡예적인 논리 속에서 한녀는 재차 도구화된다. 앞서 지수가 서동환으로부터 한녀가 독립적인 인격임을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열쇠라는 은유를 경유해 한녀가 서동환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전리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하필 소설의 제목이 왜 ‘형성기’인가에 관해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최상규가 그리고자 한 것이 지수라는 인물의 변화라고 할 때, 지수가 어떠한 유형의 인간으로 형성되고 있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수의 모든 관심은 본인이 진짜 ‘남성’인지에 관한 문제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결국 소설의 핵심은 ‘남성성’의 구축에 있다. 문제는 지수가 서동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한녀를 쟁취하는 서사가 과연 남성성의 획득으로 서술될 수 있는가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위와 같은 단순한 도식성에 따른 결말은 앞서 지수를 옴아맨 남성성에 관한 다층적인 문제의식을 소거하고 그 자리에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전형적인 논리를 위치시킨다. 별다른 일신상의 변화 없이 주인공이 갑작스레 한국적 남성성의 세계에 포섭된 셈이므로, 이를 지수가 주체가 되어 이뤄낸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한녀를 구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소유하기로 하는 것이 지수의 결심이라면, 여성을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서동환과 지수는 대결하기보다 ‘남성 연대를 이룬 것에 가깝다. “타자의 존재를 생존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타자를 억압”⁴⁸⁾하는 ‘군대’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지수와 서동환의 갑작스러운 연대는 한국적 남성성의

가장 흔한 내러티브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의 군사주의적 남성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들 사이의 계층이나 학벌 등을 떠나 군대 내의 위계질서로 재편된다는 면에서 일정한 탈사회적 평등함을 내포”하는 군대의 특징으로 인한 “남성들 간의 독특한 연대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된다.⁴⁹⁾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기』는 징병제를 둘러싼 당대적 남성성 훈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화하는 독특한 남성성의 사례를 포착하는 작품인 동시에, 군사주의와 긴밀하게 연계한 한국적 남성성의 견고한 작동 기제에 포섭되고 마는 주인공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5. 나가며: 승리를 유예하는 악몽

“한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얼굴은, 눈은 말하고 있었다. 오세요. 어서 이리로 오세요. 이 광활한 천지 사이에서 저를 잡아주세요. 이 가운데서 벗어버릴 테니, 아무것도, 눈뿔만큼의 것도, 걸치지 않은, 저를, 저의, 저만의 전부를 잡아주세요…….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굵고 튼튼한 느티나무 줄기에 몸을 기대었다.

“왜 한녀는 오지 못하지? 왜 나보고만 오라고 하지? 나도 벗어버릴 수 있어. 알몸뚱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쪽에서도 오지 못하고 나보고만 오라고 하지? 왜? 무엇 때문에?”

웃음의 유동은 한녀의 부동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녀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

48) 정희진, 앞의 책, 291면.

49) 권인숙, 앞의 책, 238면.

었다. 오세요. 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오세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아깝지 않아요? 자요. 이렇게 옷을 벗겠어요. 지수 씨를 맞을 최후의 준비를 하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269-270)

소설이 전개됨에 따라 애초의 문제의식이 흐려지는 한계에 대해, 지수가 감옥에서 꿈 악몽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복차림으로 지수를 찾아온 중호는 이십일 간의 휴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수를 어딘가로 끌고 간다.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지수를 대하는 중호의 태도는 몹시 냉담하다. 중호가 데려간 곳은 허름한 폐가의 마당으로 윤석, 하진, 진욱과 그들의 짝이 모두 모여 있다. 마당에는 원탁이 있고, 마당 구석엔 큰 느티나무가 선 언덕이 있다. 지수는 공동의 사색이라도 하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수를 노려보는 친구들에게 위화감을 느낀다. 문득 하늘의 광선들이 마치 그물과도 같은 형태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미스 조를 시작으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진다. 곧이어 저 멀리 한녀가 등장한다. 한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눈빛으로 “어서 이리로 오세요”(269)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지수는 느티나무에 몸을 기대며 한녀가 자신에게로 와 주기를 요청한다. 점점 나신(裸身)이 되어 가는 한녀를 보며 그녀에게 향하려고 하지만 나무와 일체가 된 듯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제발 내게로 와달라고 절규하며 몸부림치던 중 일순간에 몸이 풀려나는 감각과 함께 악몽은 끝이 난다.

학적보유병 제도를 비롯한 징병제를 둘러싼 당대의 문제적 상황을 기민하게 포착하는 감각이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몽의 출발점에 중호가 서 있다는 점에서 징병제라는 유령이 여전히 지수의 걸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수가 작중의 모든 남성 인물과 불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호는 지수의 사고 체계 속에서 유일하게 동류(同類)에 해당하는 남성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중호는 지수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데, 군대에서의 무기력한 상태가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지수의 암시가 중호에게 달갑게 느껴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단절된 대화는 지수에게 또 하나의 불안으로 작용한다. 감옥에서 꾸는 꿈은 중호와의 관계에 대한 지수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그의 친구들이 지수의 미성숙을 지적하거나 그의 열등감을 자극했던 것과 동일 선상에서 중호 또한 그의 곁에 남지 않고 사라지는 쪽에 선 것이다.

한편, 중호를 포함한 지수의 모든 지인이 사라진 끝에 돌연 한녀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녀는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의 상태로 그를 기다린다고 눈짓하고, 지수에게 어서 자신에게로 올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몸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지수는 한녀에게로 향하지 못하고, 왜 한녀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 것인지를 되묻는다. 지수는 심지어 본인도 알몸이 될 수 있다며, 옷을 벗고 기다리는 쪽이 꼭 한녀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몽의 내용을 의식하듯 『형성기』의 가장 마지막 대목에서 지수는 “꿈속에서 그를 부르고 있던 한녀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무것에도 붙어 있거나 뿌리박지 않은 자유로운 몸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301)한다. 흥미로운 문제는 서동환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고양감으로 인해 ‘한녀는 왜 내게 오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이 사라지고 지수가 ‘한녀를 구출하러 가야 한다’라는 도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지수의 전화를 받은 한녀는 “전화에 응답한 것을 후회”(299)하고 사실상 설득에 가까운 대화 끝에서야 마지못해 “그럼, 오세요”(300)라고 답한다.

지수의 악몽은 『형성기』를 통해 본고가 분석하고자 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 시기 청년의 남성성에 관한 문제를 응축한 결과물이다.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지수의 모습은 미성숙한 남성으로서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세대 남성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집을 떠날 것을 중용하는 아버지가 있다.⁵⁰⁾ 구태여 알몸이 되겠다고 말하는 한녀는

여성과의 결합을 최우선의 목표로 여기며 강화되는 남성성의 문제를 노출한다. 그러한 상징으로서의 한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뿌리박힌 지수의 몸은 그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불안의 결과일 것이다. 꿈의 시작에 서 있고 친구 무리에서 가장 뒤늦게 사라지는 인물인 종호는 그 자체로 징병제와 군대 체험의 상징으로, 앞선 모든 남성성 불안의 근원에 군대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악몽의 상황을 역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녀에게는 지수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남긴 결말은 앞서 언급한 『형성기』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청한다. 결국 주류의 남성성 논리에 편입한 것으로 보이는 지수의 서사는 결코 매끄럽게 완결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수가 마침내 체화한 한국적 남성성이 머지않아 파열될 것이라 짐작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최상규가 포착하는 한국적 남성성의 문제는 결코 단일한 것이 아니다. “군사주의는 성차별을 발판으로 한 남성들의 계급을 초월한 남성 연대로만 작동 가능하다”⁵¹⁾라는 서술을 고려한다면, 군대에서의 경험을 전면 부정하는 인물인 지수는 한국적 남성성에 관한 보편적인 서술을 이탈하는 측면이 있다. 『형성기』의 부족한 서사적 완결성은 최상규의 남성성 탐구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지만, 징병제의 시행과 함께 국가로부터 강요되고 급조된 한국적 남성성이 당대의 남성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희진은 “젠더가 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줄 때 젠더 질서의 변화도 가능하다”⁵²⁾라며 남성 연대로서의 단일한 남성성의 서사를 해체하기 위해 다층적인 남성성 탐구가 필요하다

50) 본문을 통해 언급하지 못했으나, 부모님 또한 악몽에 등장한다. 종호를 따라 잠시 외출을 다녀오겠다는 허락을 구하려는 종호에게 아버지는 어서 빨리 나가 버리라는 듯한 손짓을 하고, 어머니는 안전을 조심하라며 걱정한다.

51) 정희진, 앞의 책, 293면.

52) 정희진, 「편재在하는 남성성, 편재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32면.

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남성성의 임의적 구성은 남성성의 편재(遍在)와 편재(偏在)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⁵³⁾ 이 지점에서, 『형성기』는 한국전쟁기 이후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의 남성성을 구축하는 서사로서도, 해체하는 서사로서도 유의해야 하는 텍스트가 된다.

53) 정희진, 위의 글, 33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최상규, 「포인트」, 『한국소설문학대계 34: 불꽃 외』, 동아출판사, 1995.

최상규, 『형성기』, 삼성출판사, 1972.

2. 단행본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정치학』, 교양인, 2005.

R.W.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리오 브로드, 김지선 옮김,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 삼인, 2010.

3.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강인화,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처리':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법과사회』 6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185-213면.

_____,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1960~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우영, 「남자(시민)되기과 군대 -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03-141면.

루인, 「남성 신체의 근대적 발명」,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105-153면.

서동수, 「1950년대 최상규 소설과 성장의 서사」, 『현대소설연구』 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305-328면.

손혜숙, 「최상규 소설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윤시원, 「1950년대 병역형평성 논쟁과 병역법 개정」, 『사림』 제71호, 수선사학회, 2020, 197-227면.

이경재, 「최상규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이흥배, 「최상규 소설 연구: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정소미, 「비물질적 기호의 의미생성과 사건의 반복— 최상규의 『새벽기행』론」, 『현대문학이론연구』 88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91-116면.

-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남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11, 15-33면.
- 최순중, 「최상규 소설의 시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최상규의 「새벽기행」과 카프카의 「변신」 비교 연구 — 변신 모티프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통권 35호, 국제한인문학회, 2023, 95-118면.
- 최영자, 「아버지 찾기 서사로서의 최상규 소설」, 『구보학보』 4집, 구보학회, 2008, 235-261면.
-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거부와 기피 사이, 비(非)군인의 장소 - 1970년대 송영 소설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8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361-390면.
- Jongwo Han · L.M.H. Ling,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 a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v.42 no.1., 1998, pp. 53-78.

4.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대학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5. 인터넷 자료

- 「병역법」(1957.8.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 「병역법시행령」(1959.2.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49&ancYd=19590218&ancNo=01452&efYd=1959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Abstract>

The Growth or Degeneration of Discharged Men:
The 'Formative Period' of Korean Masculinity
- The Thesis of *The Formative Period* by Choi Sang-gyu -

Lee, Kyoung In

This thesis analyzes Choi Sang-gyu's *The Formative Period* to examine the aspects of 'Korean masculinity' during the period of conscription establishment from the mid-1950s to the early 1960s.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conscription of this period provided reduced service period only to university registered soldiers, thereby reinforcing young men'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The protagonist of *The Formative Period*, Han Ji-soo, could have enlisted as a university registered soldier but became a regular soldier due to an administrative error. Because of that error, the sense of deprivation becomes a central concern in his military experience. Meanwhile, Ji-soo perceives his own military experience as powerless and meaningless. His post-discharge daily life, unable to escape the military experience of powerlessness he felt then, leads others to judge him as not fully matured to become an adulthood. His inability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y and his lack of interaction with women weaken Ji-soo's masculinity, causing him to clash with friends who have already entered adulthood.

In the latter part of the novel, *The Formative Period* abruptly transforms into a story about rescuing a woman named Ji Han-nyeo from Seo Dong-hwan. From this point on, the novel progresses the illusion that

Ji-soo's masculinity can be secured by triumphing in confrontations with male figures like his uncle or Seo Dong-hwan. However, the entire process of defeating them and rescuing Han-nyeo is automatically granted, regardless of Ji-soo's efforts. The failure to synchronize with militaristic masculinity—the original problem that weakened Ji-soo's masculinity—is concealed in this process. At this point, *The Formative Period* can be criticized as a failed narrative, ending with a protagonist deluded into believing the false masculinity. Yet, by presenting a character who thoroughly rejects militaristic masculinity—the most common premise when explaining Korean masculinity—*The Formative Period* open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narrative that diversifies the story of Korean men.

Key words: conscription system, university registered soldiers, discharged men, militaristic masculinity, Korean masculinity, Choi Sang-gyu, *The Formative Period*

투 고 일 : 2025년 11월 9일

심 사 일 : 2025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2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5년 12월 28일